

임진왜란 '복수 의병장' 준봉 고종후

노성태 원장의 남도인물열전

<57> 고종후



고종후 영정

축석루의 3장사

임진왜란 최대 규모의 전투는 1593년 6월 21일(음력)부터 29일까지 벌어진 제2차 진주성 전투다. 왜군 9만 명에 맞선 의병이 포함된 조선군은 4천~5천800명(추정)이었다. 9일을 버텨지만, 결과는 제1차 진주성 전투와는 달리 대패였다. '선조실록'에는 사망자가 6만 명으로, 일본의 '음덕태평기(陰德太平記)'에는 3만 명으로 나온다. 어느 쪽 기록이 더 정확한지는 알 수 없지만, 진주성이 함락되면서 조선군은 진주성민과 함께 전멸했다.

진주성이 함락되기 직전 화순 출신 경상우병사 최경희는 다음 시를 짓고 진주 남강에 몸을 던진다. "축석루의 세 장사는(矗石樓中三壯士) 한잔 술로 웃으며 긴강을 가리키네(一杯笑指長江水) 강물은 도도히 흘러가니(長江之水流滔滔) 저 물 흐르는 한 혼도 죽지 않으니(波不濁兮魂不死)." 최경희와 더불어 진주 남강에 몸을 던진 세 장사는 나주 출신 장의사 김천일, 광주 출신 복수장군 고종후다.

고종후(高從厚, 1554-1593)의 본관은 장흥, 호는 준봉(準峰), 시호는 효열(孝烈)이다. 부친은 금산 전투에서 순국한 총령공 고경명이고, 금산 전투에서 부친과 함께 순국한 인후는 아우다.

종후는 어릴 때부터 몸가짐이 단정하고 성품이 두텁고 무거웠다. 1570년(선조 3) 생원시에 합격하고, 24살이 되던 1557년(선조 10) 문과에 급제한다. 그가 학문에 뛰어났을 뿐 아니라 문장에 능했음은 '선조수정실록'의 "고종후는 학문에 능했다(高從厚能



고종후의 위패를 모신 포총사(광주시남구)

文)는 '졸기'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부친 고경명이 지은 격문인 '마상격문'은 당대 최고의 격문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고종후의 격문 또한 "보는 자들이 슬퍼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은 이가 없었다"고 하니 대단했다. 제2차 진주성 전투 당시 장의사 김천일은 부장 양산속으로 하여금 명나라 총사령관 유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를 지은 분도 고종후였다.

첫 관직은 정6품 교서관 정자였다. 이어 정6품 성균관 전직과 사헌부 감찰이 됐고, 정5품 예조정랑이 된다. 그리고 1588년(선조 21) 임피 현령에 제수됐지만, 당시의 의논과 맞지 않아 사헌부의 탄핵을 받고 파직된다. 1591년(선조 24) 국왕의 교서 등을 작성하는 지제교에 임명됐지만, 또다시 탄핵을 받는다. 임진왜란 당시 부친 고경명과 함께 향리인 광주에 있었던 연유다.

금산 전투에서 부친과 동생을 잃다

1592년 4월13일(음력), 전국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15만여 병력으로 조선을 침략했다. 전쟁 준비에 소홀했던 조선은 20여 일 만에 한양이 함락되는 등 전쟁 초반 속수무책이었다.

조선의 운명을 건져낸 것은 이순신이 이끈 전라좌수영 소속의 수군과, 김천일·고경명·최경희 등 전라도 의병들이었다. 이 중 최대 규모의 의병은 고경명 부대였다. 고경명은 유평로·안영과 함께 6천여 의병을 모집, 6월11일(음력) 담양을 출발했다. 그 6천 의병 속에 과거에 급제한 고경명의 두 아들, 종후와 인후가 있었다.

담양을 출발한 고경명은 6월13일, 종후에게 전주로 가 영남에서 올라오는 왜군을 막게 했다.

고종후는 급구로 가 의병을 모

집하고 탐라(제주)에 격문을 보내 전마(戰馬)를 보내줄 것을 청했다. 김제, 임피 등 여러 현에서 병력을 모으고 군량을 거둔 후 여산에서 부친을 만난 고종후는 은산(蘄山)으로 이동, 군대를 정돈한 후 북상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황간과 영동에 있던 왜적이 금산성을 점령하면서 전주의 형세가 위태롭게 됐다.

전주가 위태롭게 되자, 고경명은 전주를 지키기 위해 북상을 포기한 후 방어서 광역과 함께 7월9일 금산의 적을 공격했다. 고경명은 주위에 불을 지르고 비격진전포와 30명의 특공조까지 투입,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첫날 전투는 고경명군의 승리였다. 이튿날 방어서 광역의 관군이 싸움 뜻이 없음을 간파한 왜군은 관군을 집중해 공격했고, 관군이 무너지면서 고경명의 의병들까지 무너지고 만다.

고종후는 부친과 아우가 함께 진중에서 순절함을 알고 말에서 떨어져 혼절한다. 얼마 후 깨어나 맨몸으로 적에게 달려들어 죽으려 하자, 좌우의 사람들이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헛되이 죽는 것은 무익하다"며 만류했다. 또 말하기를 "부친의 시신이 현재 쌓여 있는 시신 가운데 있는데, 지금 공(고인후)이 또다시 죽는다면 누가 시신을 거두어 얹하겠습니까?" 했다.

고인후는 적이 물러나자, 전쟁터에 들어가 고경명의 시신을 찾아 몰래 금산의 산속에 묻었다가, 8월 부친과 아우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르면서 "부자 형제가 위태로울 때 서로 알고 나만 홀로 구차하게 살았으니, 이는 천지간의 죄인이다. 내 무슨 면목으로 세상에 서서 살겠는가"라며 통곡한다.



1910년대 절양루 모습

<광주시 제곡>



고씨상강문에 걸린 고종후 효자 정려

'복수의병장'이 되다

고종후는 부친의 장례가 끝나자, 곧바로 거병하고자 했다. 그러나 모친 울산 김씨는 "네 아버지와 네 아우가 모두 죽었는데, 네가 만약 또 죽는다면 나는 미망인으로 남는 목숨을 장차 누구에게 의지해 살겠느냐. 내 먼저 자결할 것이다. 차마 또다시 네가 죽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며 울면서 만류한다.

고종후의 고민은 컸다. 의병을 일으키자니 어머니의 뜻을 상하게 할까 두려웠고, 어머니의 명을 따르자니 창을 베고 자는 의리를 잃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고종후는 방문을 걸어 잠근다. 낮에는 해를 보지 않고, 밤에는 등불도 밝히지 않았으며, 마음조차 입에 넣지 않았다.

이에, 울산 김씨는 "내가 의병에 달려가려는 너를 만류한 까닭은 본래 네가 살기를 바라서였는데, 이제 네가 병들어 죽게 됐으니 똑같이 죽을 바에는 차라리 너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다.

거병해도 좋다는 모친의 허락이 떨어지자, 상복 차림의 고종후는 스스로 '복수의병장'이라 이름 짓고, 복수할 사람을 불러 모아 군사를 일으켜 별군(別軍)을 편성한다. '선조수정실록' 선조 25년 10월1일자 기록에는 전라도 체찰사 정철이 고종후로 하여금 사노(寺奴)를 뽑아 군사를 삼도록 특별한 조치를 내리고 있음도 알 수 있다.

격문을 돌려 병력을 모으고 군량이 모이자, 고종후는 부대를 정비한다. 조수준을 계원장(繼援將)으로, 승려 해정을 유격장으로, 김인후와 고경신을 군관으로, 오차를 종사관으로, 오유를 부장으로 삼는다. 이때 고경명의 시신을 거둔 노비 봉이와 귀인도, 숙부 고경형도 따라나선다.

광주에서 한양을 떠날 때 이별의 장소가 광주광역시 북구 누문동(광주제일고 근처)에 있던 절양루(折楊樓)였다.

절양루에서 군대를 정돈하고 있을 때 안동 진정집(임정각)에 피난하고 있던 부인 고성 이씨가 두 아들을 데리고 급히 달려와 만남을 청한다.

고종후는 "내 이미 군영에 있으니 떠날 수 없다"고 거절한다. 이에, 고성 이씨는 계집종을 시켜 두 아들을 보내어 작별하게 했

데, 당시 큰아들 부림은 나이가 일곱 살이었고, 작은아들 부인은 다섯 살이었다. 고종후는 두 아들을 무릎 위에 앉히고 등을 어루만지며 "나는 너희들이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살아 있었는가"하고는, 속옷을 벗어 두 아들로 하여금 부인에게 전하게 해 작별한다.

이 이야기는 약천 남구만(南九萬, 1629-1711)이 고종후의 시호를 칭한 행장(行狀)에 나온다. 부인과 두 아들과의 이별의 모습이 장엄하지만, 가슴이 미어진다. "좌우의 사람들이 모두 울었다"고 기록한 연유다.

진주남강에 몸을 던진다

1593년 6월, 전라병마사 선거이와 경상도 의병장 객재우마저 포기한 진주성을 지켜 내기 위해 장의사 김천일이 3백을 거느리고 가장 먼저 입성했고, 뒤이어 충청 병사 황진과 경상우병사 최경희가, 그리고 복수장군 고종후가 군사 4백을 이끌고 합류했다. 장의사 김천일은 나주 출신이었고, 충청병사 황진은 남원, 경상우병사 최경희는 화순 그리고 복수장군 고종후는 광주 출신이었다.

9만 명에 맞선 관군과 의병 5천여 명은 9일을 버텨지만, 동문의 성벽이 비로 인해 무너지면서 성이 함락된다. 진주성이 함락되자 고종후는 장의사 김천일, 경상우병사 최경희와 함께 임금을 향해 두 번 몸을 던지고 남강에 몸을 던진다. 대장이 몸을 던지자, 종사관 오차와 군관 김인후도, 숙부 고경형과 노(奴) 봉이와 귀인도 그 뒤를 따른다. 부장 오유는 이종인·강희열 등과 함께 끝까지 싸우다 힘이 다해 죽는다.

남구만이 고종후의 시호를 칭하며 쓴 '행장'에는 이런 이야기도 실려 있다. 고종후가 남강에 뛰어들려고 하자 이웃집에 살던 무사 한 명이 울면서 "저는 물에 익숙해 헤엄을 잘 치니, 공(고종후)을 업고 건널 수 있습니다"라고 업힐 것을 청한다. 이에 고종후는 "내가 금산에서 죽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했는데 지금 살기를 구한단 말인가. 내가 만약 살아 돌아가거든 오늘 이 일을 우리 집안 사람들에게 말하라"라는 당부의 말을 남긴다. 살아 돌아온 무사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오열했다고 한다.

남강에 투신한 효열공 고종후, 그의 시신은 수습할 수 없었다. 진주시 이반성면 발산리에 있는 묘는 임진왜란이 끝난 한참 후인 1619년(광해군 11), 혼을 불러 만든 초혼장 묘다.

진주 창렬사에는 김천일, 최경희 등과 함께, 광주 포총사에는 부친 경명과 아우 인후 등과 함께 배향돼 있다. 1711년(숙종 37) 효열(孝烈)이라는 시호가 내려진다.

부친 경명의 시호는 총령(忠烈), 아우 인후는 의열(毅烈)이다. 그리고 고경명의 부조묘에 두 아들 종후, 인후의 불천지위(不遷之位)가 배향된다.

세상 사람들은 고종후 부자와 형제가 의리에 죽는 것을 변성양(卞成陽)에 견주곤 한다. 변성양은 진(鎭)나라 사람으로 소준(蘇峻)의 반란 당시 적과 싸우다 전사한 변호(卞壺)를 말한다. 변호가 전사하자 두 아들 진(鎭)과 우(卍)가 부친의 죽음을 목격하고 적진 속으로 뛰어들어 죽임을 당한 것이 고경명의 부자와 형제가 순국한 모습과 흡사해서였다. 그러나 고종후의 누님인 노상룡의 처 고씨부인은 왜놈을 꾸짖은 후 자결했고, 숙부 고경형과 종 귀인·봉이도 고종후와 함께 목숨을 던졌으니, 진나라 변성양 가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충절 가문이 아닐 수 없다.



<노성태·남도역사연구원장>



고종후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진주 창렬사